



무량사 부도밭. 왼쪽 키가 큰 부도가 매월당의 것이다.

34 김시습 입적한 부여무량사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무량사의 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무량사는 가을과 겨울 뿐이었습니다. 시대가 안겨준 울분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선택한 굵은 길들을 돌아 매월당이 찾아든 만수산은 가을이었지요. 그리고 새벽이 피기 전에 이승의 인연을 마감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스라한 허공에 이승의 찬란한 한살이를 기억시키듯 매달린 흙시 같이 물결한 마음으로 만수산을 찾아들었을 매월당. 그 늙은이의 긴 그림자는 지금 무량사 계곡에 꽃과 잎들의 잔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여 무량사(無量寺) 극락전(보물 제356호)은 꽃바람 가득한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잎이 높아 보입니다. 만수산이 떠받치고 있는 하늘은 극락전과 오층석탑(보물 제185호)과 석등(보물 제233호)을 배경으로 무량한 시간을 풀어 놓았지만, 누구도 그 시간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만 가질 수 있을 뿐, 자기의 기억 용량만큼만 기억하고 자기 상상력의 부피만큼만 가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매월당(梅月堂). 그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59년의 생애를 한 보퉁이에 싸안고 찾아 든 무량사에서 그가 펼칠 수 있었던 꿈은 그의 초월한 나날에 비해 한 잎이 낀 것이었는지라도 남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이미 세상은 뜻대로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 뜻을 펴고자 하다는 지엄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는 꿈을 펼치기 위해 무량사로에 든 것이 아니라, 한 생애를 두고

접지도 펼치지도 못했던 안쓰러운 꿈을 차곡차곡 갈무리하여 저 극락전 부처님 앞에 가을 시냇물처럼 차갑게 풀어 놓으며 자신도 시냇물이 되어 서방정도로 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월당의 생애는 아픔이었고 아픔을 극복하려고 더 아팠던 문학이었습니다.

한 갑자(甲子)를 살고 간 그의 삶은 주제가 분명하고 기승전결(起承轉結)이 명징했습니다. 입을 열면 황금바람을 토해내어 길고 짧은 시의 율격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승과 저승을 적서대며 흐르는 길고 그윽한 이야기(小說)가 되었으니까요. 술이라 하고 마시고 발광을 하면 세상의 정이름지 못한 것들이 숨을 죽였고 미치광이 행색으로 저자거리를 휘젓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청량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했습니다.

라 그의 기질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유객(有客)'이란 시에서 "20년 동안이나 남북으로 떠돌았는데 손에 염주는 돌리고 있지만 머리는 쇠질 모자로구나"라며 허염없이 떠도는 자신의 캐릭터를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오세(五歲)', 매월당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오세. 다섯 살 때 왕(세종)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 고관들로부터 이런저런 테스트를 거친 뒤 왕으로부터 "자라면 크게 쓰겠다"는 황감한 언약까지 받은 신동(神童). 그의 재능은 일취월장하는 지식의 폭과 깊이로 드러났고 입격(久格)하여 대장부의 길을 탕탕하게 가려는 청춘시절의 기상과 포부는 '오세신동'에 대한 주변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스스로 꺾어 버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의 왕좌를 빼앗는 미증유의 정국

매월당의 처절한 생애 부도에 애절하게 스민 듯 날선 아픔도 아물게 하는 시간의 부드러움 일깨워

매월당은 선사(禪師)도 강사(講師)도 아니었습니다. 행색은 승려였지만 마음속에는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유럽의 한 지식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귀의 했다고보다는 불문(佛門)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아픈 시절인연을 달래고 굴절된 현실을 통탄했던 겁니다. 윤회도의 논지에 활달한 소신을 가졌던 매월당은 불교의 이치에도 마력이 없어서 <삼현담요해>를 저술하고 <대화엄일승법계도 주병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의 종교로서의 불교와는 끝내 침잠하지 못했습니다. 역발의 시대였기 때문이 아니

(1453년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친정과 1455년 왕위 찬탈)을 본 김시습은 공부하던 북한산 증흥사 마당에서 읽던 책을 불태워 버리고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거짓 미치광이" 노릇으로 일관된 그의 방랑은 서북과 만주벌판, 관동과 영남을 두루 거치는 길고도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보이는 것 너머지는 것은 모조리 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버리고도 하고 모아 두기도 했습니다. 버리고 또 버린 그의 시는 산천을 뒤덮는 낙엽이 됐고 낙엽으로 씌운 그의 정신은 강토에 인륜과 천륜의 지극한 길을 만들어 냈습

무량한 시간 속 잠들지 못할 고향 그 외로움의 꽃 피네

니다. 다만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 통한일 뿐.

방랑과 냉소가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매월당은 방랑을 접고 도성에 돌아와 생계를 꾸리려는 노력도 했고 고위직을 누리는 선후배 정치인과 동료들에게 객담과 아우와 꾸지람의 언동을 독화살로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절은 변하지 않았고 망가진 인륜과 천륜은 저, 영월 청령포의 소쩍새 소리로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기어이 청령포의 단종은 사약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었고 왕좌를 삼킨 세조의 시대를 거절할 힘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의견을 모았다가 일거에 몰살되는 일과 죽음으로써 거꾸러진 천륜에 저항 하던 신하(死六臣)와 살아서 부패한 현실을 부정하며 바른 길을 열며 보려 했던 신하(生六臣)가 모두 한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꿈같은 시절을 우울하게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육신의 수급을 거두어 암장하던 그 손으로 천지시간의 형상과 이치를 꿰뚫는 시를 내걸고 술을 마시고 세상을 향해 꾸지람을 퍼부어 대던 것 역시 매월당의 삶이었을 터.

새로 들은 반달이 나뭇가지 위에 뜨니 산사의 저녁종이 울리기 시작하네. 달그림자 아른아른 찬이슬에 젖는데 뜰에는 서늘한 기운 창들로 소미네.

무량사 천왕문 건너편에 '매월당 사비'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높고 가지가 성성하여 빛조차 들지 않는 공간. 소나무 아래 직사각형의 사비가 있고 그 앞으로 길손들이 막들로 쌓은 작은 탑들이 앙증맞게 놓여 있습니다. 이 사비는 1983년 가을에 전국시비 건립동호회가 성금을 모아 세운 것으로 시의 내용은 정한도 선생이 번역했고 글씨는 김충현 선생의 솜씨입니다.

높거나 웅장하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매월당의 사비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가면 부도밭입니다. 거기 매월당의 부도와 비가 있습니다. 부도는 웅기종기 정답을 나누듯 앉아 있는 다른 부도들에 비해 키가 더 크고 조각이 섬세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슬퍼 보입니다. 양식은 석종이라기보다는 부도의 전형인 팔각원당형을 따랐습니다.

중대석에 어우러진 두 마리 용은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회통하고 있는데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마리의 용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역사라는 이름의 여

의주를 회통하는 것 같습니다.

무량사 부도밭의 시간은 부드러워서 아무리 날 선 아픔도 시나브로 아물게 합니다. 공간은 그윽하여서 한 지식인이 품어야 했던 시대적 고통을 조금씩 새로운 희망의 공력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거기, 매월당의 부도가 우뚝 서 있습니다.

부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매월당의 아픔과 문학 그리고 꿈을 읽어 봅니다.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탐욕의 무리들이 지어내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 빌붙어 사는 민중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위해 생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고 자연과 더불어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역하고 거스르고 뒤집고 꾸미는 자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지금이 라고 달라진 것은 없는 듯합니다.

그의 문학은 그 모순과 아픔을 뿌리로 삼았을지라도 언제나 밝은 쪽을 향해 마흔의 거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거울에 되비친 그의 문학은 때로는 소담스런 율시로 드러나고 때로는 날카로운 문장으로 피어났습니다. 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사람 사는 향기를 흠뻑하는 저 <금오신화(金瓶新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우리 문학사에 깊은 시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시는 이후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남아 전하는 것은 2200여 수. 윤회의 시간을 시로 달렸고 통한의 현실을 시로 썼던 매월당. 매월당은 50세 이후 한 때 설악산에 있었는데 그 때 '나의 삶(我生)'이란 시를 지어 스스로의 생애를 더듬었습니다.

태어나 사람 꼴 취하였거늘 어찌해서 사람 도리 못다하였나. 젊어서 명리를 일삼았고 장년이 되어선 자빠지고 넘어졌네. 고요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걸 진작 깨닫지 못하였나니. 후회해도 지난 일을 돌이킬 수 없기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을 받아 짊어 주면. 충도 효도 못 이루었거늘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고 찾으랴.

살아서는 하나의 죄인 죽어서는 구기가 되리라만 헛된 이름 또 일이나서 돌아보면 번뇌만 더하누나. 나 죽은 뒤에 내 무덤에 표할 적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 준다면 나의 마음 잘 이해했다 할 것이니. 품은 뜻을 천 년 뒤에 알아주려.

임연태 (시인·본지 논설위원)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범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고,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만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풀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 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무동산중개소, 미미홍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클럽, 핸드폰점, 분영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범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다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증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툴 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 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저중재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저를 맡게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